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7월 10일 (제85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영광은 함께 받는 것!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화성탐사를 위한 사상 최강 로켓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켓에 달릴 부스터(보조추진체)의 2차 시험도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화성탐사선 가는데 작은 부품도 같이 가는구나!' 덩그러니 탐사선만 화성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작은 나사까지도 화성에 간다는 생각이 나오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됐다. '그렇지.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도, 파나마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 일행들은 나와 함께 갔었지. 머리 가는 곳에 다리도 가고 팔도 가는 게 맞아.'

나는 요즘 오늘의 만나를 보내는 일로 밤낮 분주한 한은택 전도사에게 "화성탐사선 가는데 작은 나사도 가더라"고 말해줬다. 무슨 뜻인지 그는 분명히 알 것이다.

새벽부터 4부 예배까지 나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 날에 나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나사가 화성에 같이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몫을 철저히 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찰린저호가 왜 폭발했는가? 나사 하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고 강조하신 것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비록 나사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자. 그러면 화성탐사선과 함께 작은 나사 하나도 화성에 가듯 때가 되면 높아질 것이고, 그 날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물론이요, 주님과 한 상에 앉아 파티를 하게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잔뿌리가 나무를 성장시키는 법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지난 6월 28일, 이 말씀을 주제로 교육국 담임인 이초석 목사님의 임원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한 단체에서 지도자가 꿈은 뿌리라면 그 옆에 브레인들이나 협력자들은 잔뿌리다. 꿈은 뿌리는 정체성을 지키는 자이고, 잔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여 나무가 자라게 하는 실질적인 실무진을 뜻한다. 그러므로 잔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지. 즉 사람을 잘 써야 한다는 거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먼저는 나

사람은 키워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좋은 잔뿌리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거목이 될 것이다."

이어 7월 1일 JCA카데미에서는 '정보는 성공의 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민수기 13장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에 12명을 급파하여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또한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네 명을 설외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병 고침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

을 늘 상고하라고 하신 것이다. 정보란 성공으로의 날개요 징검다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7월 2일에는 중고등부 세미나가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동안 목사님이 교육하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학생들이 함께 복창한 것이었다. 열렬한 환영을 받고 등단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교육하셨다.

"생각이 너희 삶의 설계사이고, 말은 네 삶의 건축가다. 생각과 말대로 네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말이 씨일진대 영경귀 씨를 뿌리면 영경귀가 나고, 장미 씨를 뿌리면 장미가 나듯 너희의 생각에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청년대학부 임원교육 2016. 6. 28)

를 돌보이게 하는 자다. 옆 사람으로 인해 내가 돌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인품을 갖춘 자를 말한다. 또한 자기 일에 충성된 자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되지 못한다면 그 뿌리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충성이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진실과 정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일을 맡겼으면 전적으로 믿어줘야 한다. 신뢰보다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시켜 그들이 스스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꿈을 얻으려면 꿈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그리고 지도자가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을 담은 맛나고 정갈한 사람이 되면 추종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야.

장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정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을 치료받는 사건이 있으며, 마가복음 10장에도 바디매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소리를 질러 자신의 정체를 알린 후 나음을 입는다. 기드온도, 38년 된 중풍병자도 미리 정보를 얻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

지금은 정보전이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혼도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서둘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에 대한 정보, 사업 분야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모든 분야의 정보가 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서 나온 말대로 인생이 된다.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말을 하니 음란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더니 결국 팔았지 않나? 그러므로 먼저 나쁜 생각을 키질하여 버려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옳고 바른 생각, 무한한 상상력으로 큰 생각,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뿌려 꼭짓점 인생이 된 거란다. 성경도 '생각이 결과'(렐6:19)라고 하셨단다. 그러니 지금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생각과 말이 합해져 세계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를 듣고서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자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여 각 분야의 수장은 물론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단에서 배출되기를 기도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장성기도원 하계산상집회 8월 첫째 주 ~ 셋째 주 (8월 1일 월요일 ~ 8월 18일 목요일 저녁까지)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6:36~40)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보다

정보는 생명이요, 성공의 지름길이며, 승리로 갈 수 있는 날개와 징검다리입니다. 역으로 말해보면 정보에 둔한 자는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고, 승리로부터 외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대사에 이르기까지, 또 정치나 경제, 외교, 문화, 스포츠나 할 것 없이 정보가 많아야 승리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옷을 하나 사도 정보가 있으면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해외선교 팀들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꼭 입수합니다. 남미를 갈 때나 아프리카를 갈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유럽 쪽을 경유하는 것이 나은지 꼭 확인합니다. 정보를 알면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차를 운전하는 집사에게는 어느 길로 가야 정체가 없는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으라고 교육합니다. 무작정 출발했다가는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란 이처럼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무작정 정복하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민 13). 또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여리고 군대를 따돌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자기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물론 가족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수2:8~10). 라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에 과감히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는 길도 물어봐라

비록 자신은 움짱달짝 할 수 없으나 급란지붕(急難之朋)인 네 친구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거하신 곳의 지붕을 뚫어 병 고침을 받았고(막2),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막5)이나, 소경 바디매오(막10), 삭개오(눅19), 38년 된 중풍병자(요5)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사업이 될 상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보가 없으면 눈 뜬 소경이요, 귀는 있으나 귀머거리입니다.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 나라에 대해, 그 학교에 대해 정보입수는 필수입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결혼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저는 최고의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를 릴 수도 있고, 일부러 틀리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두령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때무기인지라 절대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보였습니다. 역대하 18장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라못을 놓고 싸우려 할 때 선지자 400명은 ‘싸우라, 이길 것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주는 정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보는 오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보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쭙보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을 해

야 하는지, 미약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래서 그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적진에 내려 보내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삿7:10~15).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선발된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여 그들을 왕

세 바와 살 문 나를 죽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두 차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니라”(삼상23:1~5).

그러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에

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땅의 부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서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가담한 기브온 부족들은 몰래 여호수아군대에 투항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부족들은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부족들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먼 여행으로 인해 다 닳아진 것처럼 낡은 옷과 신발로 꾸미고, 오는 중에 음식물이 다 부패한 것처럼 곰팡이가 핀 떡과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내어 놓습니다. 처음 여호수아는 이들이 사기꾼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속아서 기브온 부족을 살려주

정보는 삶의 날개요 징검다리다

겠다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합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에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수9:14).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31년 동안 큰 탈 없이 온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온 정보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하나님은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언제나 자상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도 화내지 않고 대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먼저 여쭙어보세요. 기드온처럼 양털을 깔아놓고 확신을 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없나?’ 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The Rule of 72(72법칙)

사랑을 나누자

상대성의 원리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 수익률로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는 기간을 쉽게 계산하는 ‘72법칙(The Rule of 72)’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복리(Compound Interest)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을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은 금리상품이 연 4%인 복리상품일 때, $72 \div 4 = 18$ 년이 걸리고 금리상품이 연 2%인 복리상품일 때는 $72 \div 2 = 36$ 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72/금리=기간’이라는 72법칙을 활용하여 금리<연이율>을 알면 쉽게 투자수익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72법칙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에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이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3년일 때, $72 \div 3년 = 24\%$ 이고, 기간이 5년일 때 $72 \div 5년 = 14.4\%$ 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 원을 5년간 14.4%의 상품에 넣어두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72/기간=금리<이율>’입니다. 이 계산 방식처럼 72법칙을 이용하면 목표달성에 필요한 투자수익률과 기간을 쉽게 계산해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때 투자지표로 활용할 만합니다. 또한 72법칙은 돈의 가치를 계산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4%라고 가정할 때 18년($72 \div 4$)후 돈의 가치는 1/2이 됩니다. 즉 현재의 1억 원은 물가상승률이 4%일 경우 18년 후에 5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필

요한 생활비가 200만원이라면 18년 후에는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72법칙은 간단히 ‘72’라는 숫자에 이자율과 투자기간만 대입하여 자산형성, 부채관리, 목표수익률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극찬했던 72법칙을 투자목표 설정에 적용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셈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13:8)”,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당년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창26:12~13).

하나님의 축복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나의 아내는 화초를 키운다. 여러 화초를 키우긴 하지만 무슨 이름의 화초인지도 모르고 키운다. 화초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화초에 대한 지식을 찾을 수도 없어서 잘 알지도 못한다. 아내는 단지 매일매일 화초에게 애정 어린 말투로 말을 걸고 섬세하게 관찰한다. 그리고는 물을 주기도 하고 화분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 화초는 산 것도 아니고 어디에선가 주워왔던 불품없고 말라가던 화초였다. 지금은 불품없었던 처음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새 생명을 찾은 것처럼 푸르다. 크기도 아주 커져서 한번 분갈이를 했는데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아내가 화초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만물은 다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생각했다.

6·25전쟁 당시, 두 고아원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한 고아원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 제법 영양가 있는 음식이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병들어 죽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아원은 자체 운영이라 그야말로 간신히 풀죽이나 먹는데도 아이들이 건강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궁금했다. 그래서 두 고아원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궁극증을 풀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자체 운영하는 고아원에 자식을 잃어 정신이 나간 여인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여 매일 안아주고 다독거렸기 때문이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그 여인이 엄마인양 의지하고 따랐다.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 사랑에 목말라했던 것이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무서워지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해지는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화초도 사랑을 먹고 쭉쭉 자라지 않는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그 정도는 해야지!

원칙이 있는 삶

여보게!
몇 달 전 목포교회 입당예배에 갔었네. 목포에 네 번째 교회가 섰으니 경사로운 일이지. 그런데 목포에 내 동생인 이시대 목사 손주들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손주가 되지. 손자가 돌이고, 막내가 손녀야. 그네들이 예배 후 안수가 끝나자 반가워서 내게 달려왔지. 나도 반가운 마음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손녀를 얼른 안고 뽀뽀를 했다네. 그런데 말이네. 뒤에 오던 둘째가 그만 입을 뻐죽거리며 달려오던 발길을 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둘째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더군. 이 손녀가 유독 나를 따라서 한 번 안기더니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 그 녀석에게 달려가 안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더군. 녀석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더라고. 그래서 그 어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나나 다들까 계속 울고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자기를 안 예뻐한다고. 참 난감하더군. 그래서 그 어미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지. “할아버지는 너를 제일 좋아한다. 왜냐면 둘은 친탁을 했지만, 너는 우리 쪽을 닮아서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미 하는 말이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픽 웃으면서 “좋은 할아버지”라고 했다나. 십년감수했네. 그런데 정말 사진 넣고 다니냐고? 핸드폰 속에 사진이 있으니 전혀 거짓말은 아니네. 정직과 지혜는 다른 거니까.

여보게!
나는 그 녀석 때문에 많은 걸 깨달았네. 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에게 안기고 싶어서 그 녀석이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도 그 녀석처럼 굴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안아줄 때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울던지 때를 쓰던지 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게 해야 한다는 거야. 안 안아줘도 그만이고, 다른 사람만 예뻐해도 그만이고... 그게 멋진 게 아니야. 사랑은 쟁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거라고 하신 게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둘째 녀석처럼 해보게. 응답이 바로 올 걸세.

朋友

성공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몇 백 년을 이어 명가로 발돋움한 가문들의 시작은 올곧은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의 원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대에 걸쳐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명문가(서애 류성룡, 다산 정약용, 명재 윤증)의 원칙을 살펴보면, 벼슬보다는 학문을 중시하고 충효, 실용적인 삶, 상생(相生)을 지침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비범한 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부터 지켜온 원칙을 한 두 대가 아닌 수백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두 가문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18세기 천재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주크 가문입니다. 에드워드 가문은 20세기 후반까지 300명이 넘는 학장,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등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였지만, 반면 같은 지역에 거주한 맥스주크 가문은 동일한 기간 동안 약 500명의 극빈자, 도둑, 범법자를 내며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조사를 시행한 분석가는 두 가문의 차이를 원칙의 유무에서 찾았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원칙(남을 비방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등)을 목숨같이 지켜온 반면, 맥스주크 가문은 원칙은커녕 되는데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진미를 거절한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후 왕들이 여러 번 바뀌고 권력쟁투와 시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은 시대나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고 노년까지 그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7월이 되어 달력을 새로 넘기니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32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의 표본입니다. 목사님의 원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가까이서 모범되시는 목사님을 본받아 작은 원칙 하나부터 마음에 심는다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오늘 메시지 **답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Good News



저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늘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강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저에게 예배의 장소가 아닌 일종의 도피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괴롭히던 고참들이 너무 싫었기에 교회에 있는 시간은 잠시나마 행복을 주는 공간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상병이 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늘 괴롭히던 고참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 후였습니다. 마침 대대 군중병이 저희 소대에 있기에 부락을 해서 평일에 교회로 갔습니다. 99년 12월의 어느 날, 불 꺼진 예배당에

서 기도 중에 전혀 몰랐던 저는 그저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 나를 살려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군중병은 옆에서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세미하게 들리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지만 다시 들리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음성은 정말 큰 충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5년 어느 봄날, 당시 저는 오래전 꿈인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시편 138장 8편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006년 2차 시험 1점차, 2007년 1차 시험 1문제 차이로 계속 시험에 떨어졌습

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합격하리라 믿음을 가졌고, 드디어 2008년, 주님의 은혜로 세무사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꿈에도 그리던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저를 세법강사로 전국적으로 소문나게 하였고, 청소년 진로 특강 강사로도 저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늘 매사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이 말씀은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믿음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목표를 설정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를 심었으면 분명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무사 정영민
ctachung@naver.com

우리나라의 선교초기에 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췌한 농부 한사람이 찾아와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이 있으면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미국에서는 페리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품화가 되어서 만병통치약처럼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는 약봉지를 그에게 건네주며, 이 약을 드시면 곧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그 약이 엄청나게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무료로 주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게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인데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필경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약봉지를 내팽개치고 밭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농부는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영벌의 불지옥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다.
The definition of laziness is being irresponsible.
懶惰是! 定义就是无责任感

☘ 네 속에 책임감의 나무를 키우라!
Grow a tree of responsibility in you.
要把你里头的 有责任感的树使它成长起来



:: 생활 속의 잠언 ::

엘리아의 휴식

우리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에서 하는 일은 다르다. 좌뇌는 말 배우기와 논리적 판단, 수 개념 등 판단하는 이성적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는 상상과 공감각 등 감성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좌뇌를 많이 쓰면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뇌를 많이 쓰면 즐긴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 신경학자는 우리의 오른쪽 두뇌에 '비글'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 귀여운 강아지는 주인이 업무나 공부에만 몰두하면 같이 놀아달라고 심통을 부린다. 이 이야기를 입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허클베리 핀>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톰 소녀의 모험>을 집필하던 중, 창작의 어려움을 느낀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2년간의 휴식을 취한 후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아는 유명한 배우도 계속 영화를 촬영하다보면 작품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씩 쉬는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항상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강박이 있다. 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쉬는 시간을 일탈의 행동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야 한다.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긴장의 연속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내 머리 속의 비글이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아도 휴식을 취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엘리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와 수백 명의 바알선지자들을 이기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기가 죽어서 피신 길에 오른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을 포기하고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보내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어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도 엘리아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삶

에 지쳐서 피곤하고 곤고하여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머릿속의 비글과 놀아주는 쉬는 시간을 과감히 선택해보기를 권한다. 일상을 뒤로 제쳐두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자신만의 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아무런 목적 없이 바닷가나 공원을 서성거리고 보고 일행이 없어도 좋으니 혼자라도 시골 시장을 돌아다녀도 보자. 그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비글을 살찌우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력을 찾게 만든다. 삶에 지쳐있거나 학업에 찌들어서 판단과 분별력이 사라진 벗들에게 감히 일상의 탈출을 권해본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나의 비글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다시 찾아오는 생기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2016, 제 20회 전국 연합수련회
나에게는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되자!

7.25(월)-7.27(수) 중.고등부
7.28(목)-7.30(토) 대학.청년부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특별강사: 총회장 이초석 목사